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13

트롬본 Trombone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연재 목차

- 13편. 트롬본
- 14편. 호른
- 15편. 튜바
- 16편. 기타
- 17편. 피아노
- 18편. 파이프오르간
- 19편. 유물타악기
- 20편. 무물타악기 및 에필로그

트롬본 Trombone 을 들어가며

요즘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충이 심한 분들이 많다. 1944년에도 미국에는 이웃 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잦았는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애니메이션은 옆집에 사는 불한당이 트롬본을 연습하면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신의 도움으로 초능력을 얻은 도널드 덕이 이 심야의 불한당을 통쾌하게 제압한다는 내용이다. 이만큼 트롬본은 큰 음량을 내는 악기이다. 비록 이 만화에서는 시끄러운 악기로 표현되나 사실은 중저음이 풍성하고 등글등글하면서도 장엄한 음색의 매력적인 악기이다.



Donald Duck Trombone Trouble / 유튜브

트롬본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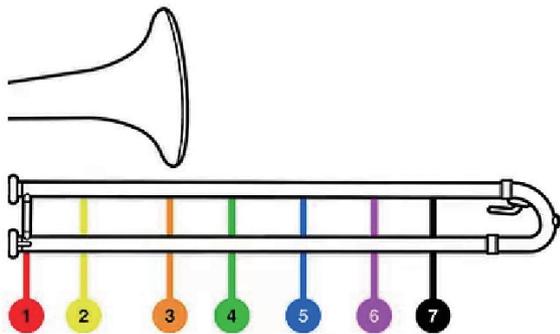
트롬본은 정확히 나타난 시점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14세기 말경에 트럼펫에 슬라이드를 장착하여 넣었다 빼다하며 연주하는 슬라이드 트럼펫이 출현하면서 점차 트롬본으로 발전하였다. 과거에는 트롬본을 색뱃(Sackbut)이라 불렀다. 이 명칭은 밀고 당긴다는 뜻의 프랑스어 '사끄부뜨'에서 유래되었으며 악기를 연주하기 위하여 슬라이드를 밀고 당기기 때문이었다. 색뱃은 현대 트롬본과 비교해보면 슬라이드의 지름이 작고 벨의 구경이 훨씬 작았으며 점차 슬라이드 지름과 벨의 구경이 커지면서 오늘날의 트롬본으로 발전했다.



색뱃 / helmut-voigt.com

15세기 중반 색뱃에서 발전한 트롬본은 금관악기 중에서 최초로 반음계 연주가 가능해졌다. 트롬본은 이태리어로 큰 트럼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커다란 벨 구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둥글둥글하면서도 장중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러운 화성에 알맞으며, 반대로 강하게 연주하면 웅장하고 힘차며 극적인 효과를 낸다. 그래서 교회음악, 오케스트라와 극음악에 자주 사용되었다. 트롬본은 느린 솔로도 가능하지만 특히 다른 악기와 합주를 할 때 앙상블의 소리는 환상적일 정도로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이다. 앙상블에서의 트롬본의 음역은 중역대를 채워주면서 음의 균형을 맞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블렌딩을 가능하게 해준다. 트럼펫(고음)의 날카로움과 튜바(저음)의 단조로움을 중역대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커버해준다. 이 악기는 팝과 락, 재즈 등의 대중음악에도 합주와 솔로로 자주 등장하는데 슬라이드를 밀고 당길 때 반음계적인 당기는 음과 미는 음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발성 원리는 마우스피스를 통해 입술을 떨리게 하여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관을 통하여 증폭된 소리가 발생한다. 음정은 슬라이드를 밀고 당기면서 각각의 음계에 해당하는 위치로 조정하는데 슬라이드를 길게 밀수록 관이 길어져서 저음을 내게 되며 총 7개의 위치(포지션)가 있다. 각각의 위치는 5mm 안의 오차를 요구하기에 정확한 음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슬라이드의 제일 먼 위치(제 7포지션)는 팔이 짧은 연주자나 아이들에게는 다소 힘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F attachment 밸브를 설치하여 이와 연결된 레버를 누르면 추가로 장착된 튜브의 밸브가 열려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모델도 있다. 아무래도 타 금관악기처럼 피스톤이나 로터리 밸브를 누르는 것에 비해 슬라이드를 밀고 당기는 것은 행동반경이 크기에 느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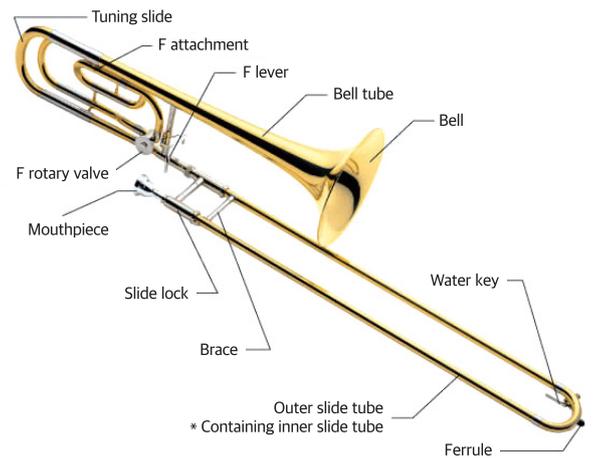
슬라이드 포지션 / brassincolor.com

밖에 없어 속주는 다소 무리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속주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들도 있다. 그리고 이 악기의 최고의 장점은 유려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글리산도 주법인데 현악기의 그것에 비견된다. 첨부된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 영상에서 글리산도 주법의 트롬본을 볼 수 있다. 조율은 메인 튜닝 슬라이드를 미세하게 넣고 빼면서 음정을 조정하며 트럼펫처럼 다양한 악음을 사용한다.

바로크 시대에 바흐는 트롬본을 자주 사용하여 꽤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는 주춤하였다. 그러다가 베토벤에 이르러 그 유명한 교향곡 5번에서 이 악기를 도입하면서 악기로써 재평가됨과 동시에 이후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며, 현대에는 대중음악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트롬본의 구조

트롬본은 크게 마우스피스, 본체, 튜닝 슬라이드, 슬라이드 튜브로 나눌 수 있다.



트롬본의 구조 / yamaha.com



내부와 외부 슬라이드 / newyorkbrass.com

트롬본의 종류

음역별로 알토, 테너, 베이스 세 가지 주요한 종류의 트롬본이 있다.

알토 트롬본

테너 트롬본보다 완전4도 높고, 닫힌 상태의 음은 Eb이며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알토 트롬본 / yamaha.com

테너 트롬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트롬본이다. 기본음이 Bb이며, 7개의 슬라이드 위치가 있고, 반음의 차이를 갖고 있다. 7개의 포지션을 벗어나는 옥타브의 음들은 입술의 떨림을 조절하여 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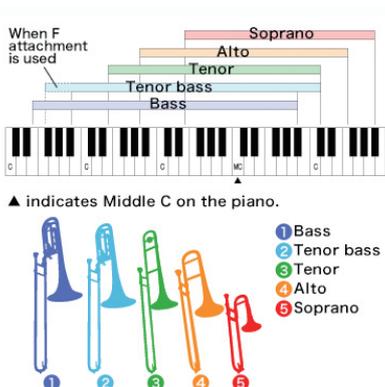
테너 트롬본 / yamaha.com

베이스 트롬본

테너 트롬본보다 완전4도 낮으며, 오케스트라에서는 트롬본보다 튜바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흔히 보는 트롬본은 대개 테너 트롬본이다.



베이스 트롬본 / yamaha.com



트롬본 음역 / yamaha.com

트롬본에 관련한 뒷이야기

버징 연습기

금관악기의 연주자들은 호흡을 불어내며 입술을 잘 떨어야 훌륭한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 입술을 진동시키는 것을 립 버징(Lip Bzzing)이라고 하며 간단하게 휴대하면서 버징을 연습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앙부쇄(입술과 입 주변 근육의 훈련)와 버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버징 연습기 / thomann.de

Buzzard Buzzing 연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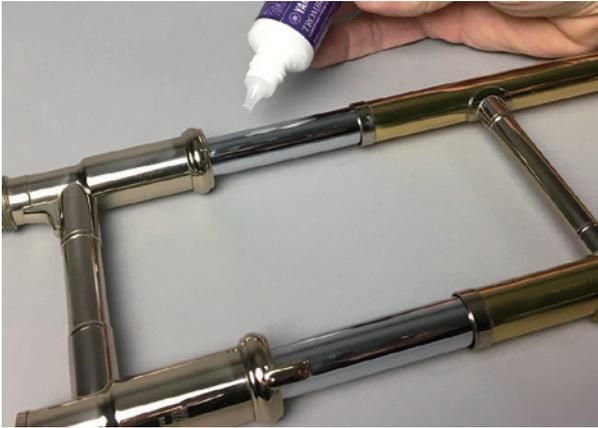
휴대가 용이한 또 다른 버징 연습기로 자신이 사용하는 마우스피스에 끼워서 버징을 훈련할 수 있다. 뚫려 있는 구멍이 작아서 실제 악기를 부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저항력도 발생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



Buzzard Buzzing 연습기 / thompsonmusic.com

트롬본의 관리

악기 연주자들은 연주 활동 외에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악기를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악기별로 관리법이 다양한데 금관악기의 경우에는 연주가 끝나면 항상 워터키를 눌러 수분을 배출하여야 하며 오일을 자주 쳐주어야 한다. 그래야 녹이 슬지 않고 스프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또한 트롬본의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원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크림이나 오일도 적당량 잘 발라주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슬라이드와 내부 슬라이드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잠금링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lock 위치에 걸도록 한다.



슬라이드 오일 / yamahaeducatorsuite.com



잠금링 / 트위터 Dr.Steven

마우스피스 부스터^{Mouthpiece Booster}

트럼펫, 코넷, 트롬본 등의 금관악기의 마우스피스에 부착하는 부스터라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마우스피스의 진동에 힘을 보태서 보다 더 힘찬 사운드를 연출한다.



Mouthpiece Booster / atelier-des-vents.com

플라스틱 트롬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저가(20만 원 가격대)에 초보자나 입문자가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의외로 사운드가 좋은 편이다.



플라스틱 트롬본 / harveynorman.com.au

사일런트 브라스^{Silent Brass} (트롬본용)

현악기처럼 금관악기도 사일런트 브라스 악기가 다양하게 있으며 호른, 유포늄, 튜바, 트럼펫, 트롬본 같은 브라스 악기의 벨 부분에 픽업이 장착된 뮤트를 설치하고 그 음을 전자회로에 증폭시켜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며 연습이나 연주를 할 수 있다. 이 악기는 신기하게도 뮤트를 장착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하는 모드도 있어서 자연스러운 악기 음을 즐길 수 있다.



사일런트 브라스 / yamaha.com

트롬본의 솔로 연주

트롬본 연주자를 트럼보니스트^{Trombonist}라고 하며 앞서 서술했듯이 빠른 연주가 힘든데 스웨덴의 크리스티안 린드버그^{Christian Lindberg}라는 연주자의 등장으로 인해 솔로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악기(바이올린, 트럼펫, 리코더 등)와 마찬가지로 속주곡의 대명사인 립스키 코르사코프^{Rimsky Korsakov}의 '왕벌의 비행^{Flight of the bumblebee}'을 가뿐히 연주하며 '트롬본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을 지녔다. 19세에 스웨덴의 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지만 솔로악기로서의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해 1년 만에 그 자리를 포기했다. 그는 트롬본 연주와 더불어 작곡과 지휘 능력까지 고루 갖춘 것으로도 유명한데 자신이 작곡한 트롬본 협주곡 '아라벤느^{Arabenne}'를 직접 지휘하고 연주하기도 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버그 / pizzicato.lu

트롬본 쇼티 Trombone Shorty

트롬본 쇼티는 트롬본과 트럼펫은 물론 보컬, 작곡까지 섭렵한 미국에서 가장 힙한 젊은 재즈 뮤지션이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는 재즈가 태동하고 발전했던 세계적인 재즈 도시이다. 항상 재즈 음악과 흥이 넘쳐나는 바로 이곳에서 1986년에 태어난 트롬본 쇼티(본명 : 트로이 앤드류 Troy Andrews)는 어려서부터 자기 키보다 더 큰 트롬본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재즈 뮤지션인 그의 형이 지어준 예명이다. 재즈 브라스 밴드를 좋아했던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뜨거운 음악적 열정으로 밤낮없이 연습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프로 밴드와 트롬본 협연을 했으며 결국 그의 밴드까지 결성하게 된다. 왕성한 그의 활동은 연주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롬본 쇼티 재단까지 설립하여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도 악기 연주를 하고 싶은 후진 양성에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된 그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펑키 재즈 뮤지션으로 2012년에는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영부인 앞에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그가 재즈 뮤지션임에도 크나큰 대중적 인기를 얻는 이유는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하여 결국 성취하고 그런 꿈을 좇는 자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순수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슬라이드 휘슬 Slide Whistle

트롬본 패밀리라 아니지만, 모양과 슬라이드를 채용한 것이 발성 원리가 비슷해서 알아보았다. 슬라이드 휘슬은 오케스트라 공연, 연극,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에서 익살스러운 효과음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보았다. 슬라이드 포지션이 있긴 하나 연주용으로 사

용하기보다는 글리산도 주법을 사용해서 한 번에 음을 쭉 뽑는 효과음으로 많이 사용한다.



슬라이드 휘슬 / amazon.com

트롬본 마이킹은 트럼펫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트롬본의 음원들

- 1) Donald Duck's Trombone Trouble
- 2) Baroque Trombone (Sackbut)
- 3) Trombone F attachment notes
- 4) Stravinsky Pulcinella (글리산도를 들을수 있음)
- 5) Trombone slide positions
- 6) Trombone Family
- 7) Trombone Warm Up - Buzzing
- 8) Plastic Trombone
- 9) Silent Brass System Review
- 10) The Daily Routine of Christian Lindberg
- 11) Trombone Shorty - Fire On The Bayou (Live 2016)
- 12) Slide Whistles
- 13) Basic Recording Techniques: Brass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금관악기군에서 두 번째 주자 트롬본을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금관악기의 세 번째 주자로 소리와 모양새가 아름다운 호른이 연재된다. 🎺



어린 시절의 트롬본 쇼티 / dailyfig.com



오바마와 트롬본 쇼티 / chicagotribune.com